

인터넷 쇼핑몰, 책 시장의 또다른 가능성

클릭 한번으로 집까지 배달 ... 대형서점 이어 다빈치·부꾸·북몰 등

책 정보도 얻고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 인터넷에 개점, 성업 중이다. 전세계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서점은 건물임대료·인건비, 유통에 따르는 물류비 등 직·간접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꿈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용자는 서점에 가지 않고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반갑다.

이미 5.6년 전부터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한 통신판매가 이뤄졌지만 회원 중심인 데다 정보 가 목욕 정도로 빈약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40여개까지 늘어난 인터넷 서점은 좀더 편리한 서비스, 다양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회원 개인의 취향까지 분석해 치밀한 도서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어린이책, 참고서 전문서점, 영어책 전문서점 등으로 분화해 간다. 대금의 지불방식이나 배달의 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먼저 정가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다빈치

(<http://www.davinchi.webfox.co.kr>)

98년 5월 처음 개설한 다빈치는 매주 새로 나온 책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신간도서를 25% 정도의 할인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원하는 책을 고른 후 우송료를 포함한 책 대금을 지정한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이름, 수신처와 전화번호, 책이름, 입금은행 및 입금액을 적은 메일을 띄우면 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우송료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2500원, 기타 지역은 3500원, 책은 3일 안에 직접 받아볼 수 있다. 각 신문의 신간소개와 서평을 한데 모아 1주일 단위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여기에 육아·경제정보 등 주제별로 여러 책을 묶어 소개하고 할인가로 제공한다.

■ 부꾸(<http://www.bookoo.co.kr>)

격주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올리는 북리뷰와 서평 사이트·사이버 서점을 겸하고 있다. 크게 '부꾸 인터넷 북리뷰'와 '부꾸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북리뷰에는 새로 나온 책의 간단한 소개부터 저자 소개, 책 내용, 머리말 요약, 목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화제의 책, 논객기행, 학술회의 중계, 칼럼 등 책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가 담겨있고, 독자서평, 북키즈가 선택한 이 책 등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특히 인문·사회·예술·문학 분야의 책들이 많고, 할인폭은 책에 따라 5~15% 정도로 저렴하다. 온라인 입금이나 카드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2만원 이상 구매하면 우송료는 무료.

■ 북몰

(<http://www.book.mallkorea.com/bmk>)

출판사와 긴밀하게 연결해 정보를 제공하고 저렴한 값으로 책을 판매한다. 돌베개아이앤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돌베개와 길벗 두 출판사만이 회원사로 있다. 새로 나온 책은 물론,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 출판사 추천도서, 숨은 책 찾기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깊이있는 정보를 전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하고, 해당 금액을 은행의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확인 후 3~5일 지난 다음 택배나 우편으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 키드북(<http://www.kid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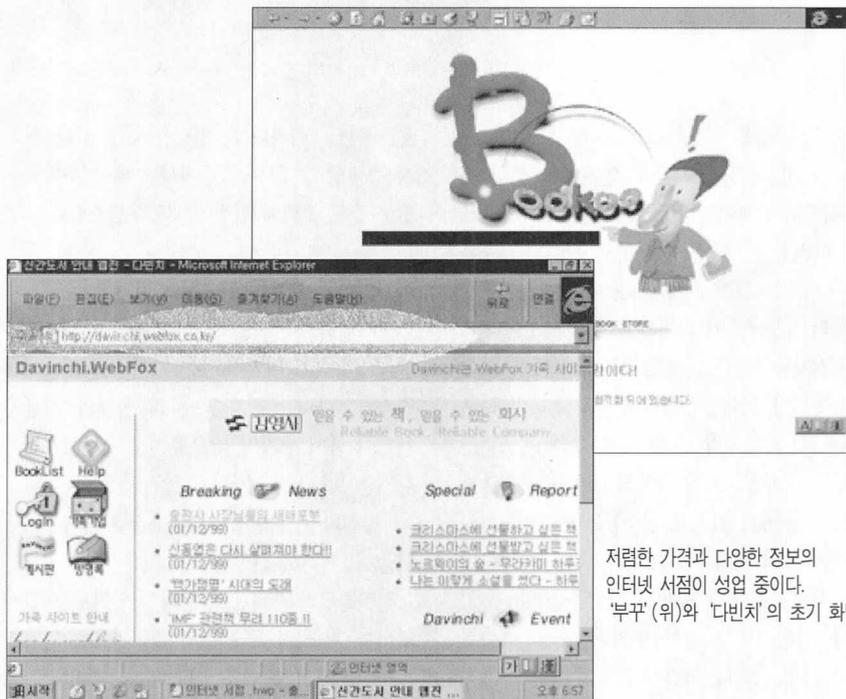
일산의 어린이전문서점 '동화나라'와 인터넷 정보서비스회사 '바우정보시스템'이 공동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서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책은 모두 1829권, 온라인과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한데 입금이 확인되면 3~4일내로 책이 배달된다.

주문액수가 1만원 미만이면 우송료 1500원을 부담해야하지만 그 이상이면 무료다. 해외에서도 주문할 수 있는데, 물론 우편요금은 따로 내야하고 지역에 따라 배달에 5~30일이 소요된다. 회원이 되면 어린이 헌책을 사고 파는 '중고도서직거래장터'에 참여할 수 있고 육아·어린이 독서지도 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 드림북프라자

(<http://www.dreambook.co.kr>)

육아·어린이, 학생도서, 전집류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으로 50~80%에 이르는 높은 할인율이 장점이다. 육아정보나 교육관련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정보의 인터넷 서점이 성업 중이다. '부꾸'(위)와 '다빈치'의 초기 화면.

사를 모아 부대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책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완구, 비디오구연동화 등도 구입할 수 있다.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인터넷 어린이서점이다.

■ 인터넷영어서점

(<http://www.interpark.com/malls/sisa>)

시사영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시사영어사에서 발행하는 도서와 일부 수입도서를 판매한다. 따로 할인을 해주지 않지만 배송료가 무료이고 살 때마다 구입가격의 0.5%를 사이버 쿠폰으로 적립해 준다. 이곳에서는 1-Pay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1-Pay 서비스는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을 은행에 입금해 놓고 사이버 캐시로 사용하는 것. 카드나 온라인, 사이버 캐시를 이용해 책 대금을 지불하면 2~7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시사영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요즘은 영한대역문고 1권 증정, 레코드점 뮤직랜드 5% 할인권 2매, ELS/YBM 수강료 5천원 할인권을 주고 있다.

■ 북스포유(<http://www.books4u.co.kr>)

북스포유가 연결하고 있는 1천여개 출판사의 책을 모두 살 수 있다. 이곳은 개별 고객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고객 맞춤서비

스를 해 주는 원투원(one to one)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다. 첫 화면에 뜨는 자기만의 방을 만들면 자신의 관심분야의 책 정보를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해준다. 일반도서는 10~15%, 전문도서는 5~10%를 할인해 팔고 실적에 따라 적립금도 쌓인다.

온라인·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미리 청약금을 넣어두고 후불결제도 할 수 있다. 2만원 이상을 사면 배송비는 무료, 2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기 증빙비용 1천원만 내면 입금 후 2~5일 후에 받아볼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현금가에서 15~2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 신용카드 결제는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 북넷(<http://www.booknet.co.kr>)

한국도서보급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점으로 많은 출판사가 참여해 15만종의 책이 준비되어 있다. 70~10%까지 파격적인 할인가로 책을 공급하는데, 카드와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1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할인이 안되고, 입금이 확인되면 주문 당일이나 익일에 배달해 준다. 아직 많은 서점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국서점과 연결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되어 있다. 신간서적을 클릭하면 3개월 전 출간된 책부터 최신간까지 2천여권 남짓을 찾아볼 수 있다.

솔보는 봄이 좋대요

한낮의 햇살이 점점 포근해지면
 '솔보'는 봄을 타기 시작합니다.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새로운 세상이
 솔보를 부르고 있나 봅니다.
 아름답고 재미있는 책들을 만들면서
 우리도 그 속에서 봄을 만납니다.
 봄빛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솔보'는 삼연편집실의 지킴이가 이름입니다.

삼연편집실의 약속

- 원고만 가져오세요.
- 전문적인 학술서적은 물론 사전류, 자서전, 학회지,
- 아동도서, 잡지에 이르기까지
- 어떤 종류의 출판물이든 최적의 형태로 완성해 드립니다.
- 이를 위해서 저희는
- 원고 집필, 교정, 편집 디자인, 전산 조판, 필름 출력에 이르는
- 전 공정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 인력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 필름 출력도 대행해 드립니다.
 매킨토시와 한글 97의 국반질 터잡기(하리포미) 출력이 가능합니다.

리버사이드호텔	↑ 한남대교	三現編輯室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 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E-MAIL: samyeun@chollian.net
우림빌딩	• 삼업은행	
이린이	• SKC플라자	전철 3호선(신사역)
놀이터	• 외환은행	• 월드컵센터
	• 푸른신용금고	• 신한은행
		↓ 영동 사거리

■ 다이렉트북스토어

(<http://www.literature.co.kr>)

출판사들이 직영하는 책 가게로 현재까지 등록된 출판사는 문학동네, 아세아문화사, 열림원, 열린책들, 창작과비평사, 푸른숲 등 6개 업체. 출판사 자체적으로 할인 여부와 그 비율을 결정하는데, 현재 문학동네·아세아문화사·푸른숲이 자사도서에 한해 20% 할인을 준다. 결제는 각 출판사별로 하고 모든 출판사가 국내에 한해 우송료는 없다. 살림과 솔이 회원 가입 준비 중이다.

■ 나나인터넷참고서할인매장

(<http://www.nana.co.kr>)

중고등학교 참고서를 할인해 살 수 있는 곳. 교학사·하이리트·두산동아·중앙교육진흥연구소·디딤돌 5개 회사 참고서를 주로 다룬다. 3권 이상 구입하면 10% 할인을 주고, 왕창세일코너 등을 통해 새책 같은 현책을 균일가 판매하기도 한다. 단체장이 추천한 도서나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에 한해 10% 깎아주고, 수학 정석, 맨투맨 영어, 성문영어처럼 많이 쓰이는 학습참고서는

수시로 할인해 준다. 기타 출판사의 교재나 사전류는 온라인 등록 후 전화번호나 E메일, 이름, 필요한 책을 남기면 재고 유무를 연락 받을 수 있다.

■ 사이버헌책

(<http://mypage.channeli.net/psjl>)

헌책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살 수 있다. 고서에 대한 정보와 희귀본의 가치를 보여주는 헌책방 사이트인데, 희귀도서, 비매품·정부간행물, 학술서적, 전공서적, 잡지, 기타 서적과 CD롬까지 판매한다. 최신간은 아니지만 비교적 신간인 책들도 헌책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이 신청하면 책값에 우송료 1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5명 이상 단체로 신청하면 우송료는 없다. 때마다 추천하는 책을 공동구매 하게 되면 책값을 20% 할인해 준다. — 이현주 기자

통신망으로 책내용 팔고산다

우리 곁에 온 미래서점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린 《비트의 도시》에서 접은 없다. 책의 내용을 바꿔 넣는 비트 교환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넷 서점은 통신 판매 이상은 아니었다. 책목록을 보고 주문하던 '원시적인(?)' 형태에서 그림 파일로 책 모양과 간단한 내용, 평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편이나 인편으로 책을 건네받는 방식은 똑같다.

책 내용 자체를 다운로드 받는 미래 서점은 우리 곁에 와 있다. 초록배카툰스에서 운영하는 전자서점 '타입'(<http://gboat.co.kr>)은 온라인으로 책을 다운로드 받는 명실상부한 인터넷 서점이다. 1천5백여권의 책이 준비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협소설과 컴퓨터 전문서적이 책 목록의 전부.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10만권 이상의 전자도서를 보유할 계획이다.

이우혁의 《왜란종결자》 등을 파는 '북스웹포क्स'(<http://books.webfox.co.kr>), 컴퓨터 전문서적을 주로 다루는 '웹스테이션'(<http://webstation.co.kr>) 역시 책 내용을 받아보는

유료 다운로드 시스템. PC통신을 통해 연재된 책들 위주라서 보유했던 책 목록이나 종수가 열악하지만 원고작성 및 책 만드는 작업이 컴퓨터로 이뤄지는 추세라 잠재가능성이 무한하다.

이들 서점에 방문하는 사람 수는 많게는 하루 5백명, 조금씩 찾는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 보통 책값이 6천원에서 1만원까지 호가하지만 이곳에서는 2천원에서 3천5백원 정도에 책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살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게 고객들의 말이다. 일본에서는 고단샤, 슈에이샤, 신초샤 등 37개 출판사의 책이 통신망을 통해 팔리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출판물 저작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 일부 이뤄져 있기는 하지만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전자도서 전용 뷰어(전자서적을 읽을 수 있는 전용프로그램)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현주)